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년), © 1998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pp.43~64.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김연철

1. 북한연구사에서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의미

많은 사람이 북한연구의 위기를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아무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 북한담론의 가벼움이나, 여전히 색깔논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북한담론의 풍성함과 대비되는 북한연구 자체의 '빈곤' 때문이다. 북한역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50, 60년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70년대 후반 이후는 일종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연구 방법론 역시 1970년대 '사회주의 연구방법론'[1]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증의 빈곤'과 '방법의 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인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상대적'으로 북한연구 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였다. 사실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연구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연구의 냉전적 접근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송두율 교수 등이 반공·반북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 이종석 박사 등은 냉전적 연구의 반(反)사실을 실증적으로 비판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

1) 1982년 출판된 안병영 교수의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보라. 과연 현재의 북한연구 방법론이 십수년 전의 그것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래서 '연구의 위기'인 것이다.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서울 : 한길사, 1982).

다.[2]

하지만 이른바 '반(反)냉전적 문제제기'[3]는 '구부러진 막대기 다시 펴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냉전적 문제틀의 한계를 완전하게 단절하지는 못했다. 특히 일부 연구들은 냉전적 가치와의 단절을 위해 반냉전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여전히 이데올로기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강정인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이 편협하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내재적 연구시각의 단점에 대한 비판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4] 비록 개념의 혼란과 비전문 연구자의 편협한 판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반냉전적 연구경향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편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미가 있음을 필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5]

그러나 강 교수가 문제설정의 오류에 대한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를 재론[6]한 것은 불필요한 동어반복이었으며, 나아가 '퇴행적' 의미를 가진다. 왜 퇴행적 문제 제기인가? 첫째, 북한연구에서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논쟁과정에서 필자가 내재적 접근법을 인식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이라는 개념 정의를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송 교수의 초기 입장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셋째, 북한연구의 역사나 사회주의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연구는

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와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1995)이다.

3) 필자는 냉전시기의 반북 · 반공적 북한연구로부터의 탈출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단계는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북한 바로알기 운동' 시기이고, 둘째 단계는 1990년대 이후 실증적 연구의 대두 시기이다. 필자는 첫번째 단계를 북한연구에서의 반냉전(反冷戰)으로, 두번째 단계를 탈냉전(脫冷戰)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4)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1994 가을).

5) 내재적 방법을 둘러싼 이해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미 김연철, "북한식 체제의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249~252쪽과 "북한 현대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서울 : 역사비평사, 1996)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대체로 기존의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6)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론 : 재론", 정치학회 발표문, 1998. 9. 26.

이미 70년대식 문제틀(전체주의, 수렴론, 근대화적 접근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데, 강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과거의 문제틀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북한연구에서 인문학적인 인식론 논쟁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한담론의 가벼움이나 이데올로기적 판단기준이 횡행하는 북한연구를 둘러싼 지식사회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가치중심적 '에세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흐리고 담론의 거품을 조장해 왔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비생산적인 인식론 논쟁의 종식과 생산적인 방법론 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 인식의 방법 :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

강정인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을 방법론이라고 이름붙였지만, 북한연구자들은 인식론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이 '귀머거리 대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강정인 교수가 전개하는 대부분의 논리적 오류는 인식의 방법을 연구의 방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사실 북한연구에 있어 접근법(approach), 시각(perspective), 개념틀 혹은 이론틀(conceptual frame-work), 모델(model)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분명한 개념규정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상호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은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상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

먼저 인식의 방법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실 인식론은 철학의 근본문제 중

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자체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immanent)이라는 단어의 뜻이 칸트철학의 '경험적'이라는 의미라고 했을 때, 경험과 선험, 혹은 경험 이전과 경험 이후 혹은 초경험 등의 개념이 과연 북한 인식을 위해 적절하게 도입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은 북한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몫은 아니다.[7] 굳이 칸트철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연구에서 경험적 인식과 선험적 인식의 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북한연구자들은 송두율 교수의 인식론적 기초, 즉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경험적이라는 의미에 동의해 왔다.

물론 강정인 교수의 오해와 왜곡은 송두율 교수의 책임이 크다. 송두율 교수는 두 가지 점에서 강정인 교수로 하여금 '허공에 주먹질'을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 첫째는 내재적이라는 개념규정의 모순적 사용이고, 둘째는 방법과 서술이 불일치하다는 점이다.

먼저 송두율 교수가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 비판해야 한다"[8]라고 규정한 초기입장과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immanent'이며 우리의 인식이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기입장[9]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두 가지 개념 규정은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상호 모순적이다. 초기 입장은 주로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민족 우월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즉 관찰자의 선험적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를 절대화하는 방식[10]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후기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북한의 내부적 가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인식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7) 물론 보다 전문적인 인식의 방법은 인식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인식론적 기초는 지역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오래된 논쟁중의 하나다.

8)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1988), 105~109쪽.

9) 송두율,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1995 봄).

10)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서울 ; 한겨레출판사, 1995), 241~242쪽. 이 책에서 송 교수는 '내재적-비판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 등의 초기 개념적 구분은 안과 밖, 자본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 등이며, 검토/비판의 대상을 북한의 이념(과 이념으로 표현된 현실)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이데올로기 중심적 접근법에 머무르고 있다.[11] 이에 비해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경험적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행위자 진술의 정당성(즉 주체사상과 같은 북한의 이념)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후기의 입장에서 초기의 언술을 평가해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은 또 다른 선험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송 교수가 실제로 경험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인식의 혼란을 가져온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가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경험적'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 인식론의 발전의 계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강정인 교수는 송두율 교수의 초기 입장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왜 경험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개념 규정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 방식은 첫째, 문제틀(외부적/내부적)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강 교수가 '양 접근법의 대립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치환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두 개의 가치의 병용, 우월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북한연구자들 사이에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즉 내부적/외부적과 경험적/선험적)을 무시함으로써 '내재적 접근론자'[12]라는 일종의 난센스적 표현을 만들어 내고 있다.

---

11) 특히 송두율 교수의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은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대한 내부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사회·경제적 형성 배경간의 긴장관계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송 교수의 주체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송두율,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한국사 22 : 북한의 정치와 사회』(서울 : 한길사, 1994) 참조.

12) 아마 대부분의 북한 전문 연구자들은 내재적(immanent) 접근론자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연구자치고 자신이 '비경험적', '외재적 접근론자'라고 규정하는 연구자가 있는지 강 교수에게 묻고 싶다. 지역 연구를 비경험적 혹은 초경험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2) 경험적 인식 방법의 중요성

그러면 왜 북한연구에서 경험적 인식방법[13]이 중요한지 살펴보자. 사실 북한연구에서 인식의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냉전시대 미국의 소련학(Sovietlogy)이나 쿠바학(Cubanology)의 정립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14] 인식론의 쟁점은 (반공주의적 시각의)선험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의 문제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논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가치와 사실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와 평가의 문제다.

그러면 먼저 북한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문제를 대비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사실을 강조한다고 해서 역사해석에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15] 동시에 사회과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치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과거와 현재의)역사적 현상을 분석하면서 연구 주제와 무엇을 중요한 변수로 검토할 것인가는 여전히 연구자 개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은 엄밀한 논증의 절차를 요구한다. 즉 주제를 선정하고 변수를 선택하는 작업은 결코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개입시키고, 연구자 개

13) 강 교수는 필자가 '경험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상적인 의미로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필자는 '경험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실증주의(positivism)'와 실재주의(realism)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14) 쿠바학(Cubanology)의 정립과정에서 나타난 반공주의적 시각의 사실왜곡이나 가치지향적 연구가 갖는 문제점에 관한 비판은 Andrew Zimbalist, eds., *Cuban Political Economy : Controversies in Cubanology*(Boulder and London : Westview Press, 1988) 참조.

15)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원래부터 비판적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경험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비판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며, 경험과 비판의 관계는 연구 방법론(인식론이 아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수 있다. 단순하게 북한의 '선전적 주장'의 현실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법에서 복잡하게 '현실 사회주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개념화된 다양한 이론틀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인의 이념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은 연구라고 볼 수 없다. 베버가 지적한 정치인의 연설과 학자의 논문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논증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중립은 타당성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16] 필자가 북한연구의 탈가치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왜 북한연구에서 '사실'이 중요한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연구에서 '사실 자체'가 진보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가? '김일성 가짜론'이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간 '사실'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하는가?[17] 바로 경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적 선험성'으로부터 비롯된 북한연구의 기형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경험적 접근은 북한의 '역사적 미화'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선호와 무관하다. '부정의 시대'에 긍정 자체가 '진보'로 해석되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보수적 북한 인식 수준에서 '상대적 의미'이지, 결코 연구자 개인의 가치 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8]

둘째, 사실(이해)과 해석(평가)은 구분되어야 한다. 해석은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이 전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19]에 대해 다르게 해

---

16) 베버는 사회과학에서 가치 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발견의 맥락과 타당화의 맥락을 구분하고, 가치 중립은 후자의 과정에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버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고 베버 자신이 발견의 맥락과 타당화의 맥락을 구분했음을 지적한 논문으로는, 김용학 · 장덕진, "베버의 가치와 사실의 비대칭적 분리 : 가치연관과 가치중립성을 중심으로" ; 배동인 외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서울 : 민음사, 1995) 참조.

17) 김일성 가짜론의 신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이종석, 와다 하루끼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극복된 바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 현대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서울 : 역사비평사, 1996), 160~161쪽 참조.

18) 강정인 교수는 '내재적 접근론자들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지만, 대중의 수준이 아닌 북한 전문 연구자들 수준에서 친북/반북의 냉전적 이분법으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과거의 관행'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19)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운동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로는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1940) :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동향과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12) 참조.

석할 수 있지만, 김일성 등 북한의 다수 지도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와다 하루끼 교수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과 역사적 현실 부분을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다.[20] 강정인 교수는 이해와 평가를 혼동하고 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내재적(즉 경험적) 접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인식의 방법에서 경험적이란 무슨 뜻인가? 경험 인식의 불완전성은 이미 실증주의와 실재주의의 논쟁을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한 방문기에서 드러난 바 있다. 똑같은 경험이라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 경험적 서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인식의 방법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연구 주제나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주제의 영역에 따라 분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21] 다만 지금까지 '북한연구 방법론'이라고 규정된 개념은 연구 방법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방법에 관련된 문제였다. 강정인 교수처럼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비교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연구시각과 연구방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강정인 교수는 북한연구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연구의 발전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 연구의 시계는 강정인 교수가 알고 있듯이 70년대에 멈춰 있지 않다. 냉전 이후 50여년 간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상이한 방법들이 상호 논쟁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는 강정인 교수의 논문에

20) 和田春樹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23쪽.

21) 이런 점에서 '북한연구 방법론'이란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 '남한연구 방법론'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듯,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혹은 각 부분의 세부주제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론은 존재하기 어렵다.

서 사용되는 '전체주의론, '사회주의론', '사회주의 산업화론'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전체주의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정인 교수는 전체주의론 자체와 전체주의론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첫째, 강 교수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문제틀과 권력의 전체화된 성격을 주장하는 이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동구권 학자들의 '현실 사회주의'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이론이 '전체주의' 이론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접근법이 명백히 다르다. 둘째, 강 교수가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을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진단한 전체주의론(브레진스키 등)의 이론적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주의론에 대한 정반대의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강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주의 연구사'에서 전체주의론은 사회주의권 붕괴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이론적 실패를 확인시켜 주었다.

먼저 전체주의적 접근법과 '전체주의 아닌 권력의 전체화된 특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왜 다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 차이의 핵심은 국가권력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방식이다. 전체주의적 '문제틀'은 당-국가를 유일한 역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란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되는 움직임 없는 대상에 불과하다.[22] 이러한 전체주의적 문제틀은 '사회주의권 연구' 내부에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비판 이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국가권력의 '전체화된 특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엘리트의 의도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체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23] 즉 '전체화된 권력'의 통제가 관철되지 않는 사회 내의 행위영

22) 전체주의 문제틀에서 국가기구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기구는 '전일적'으로 통합된 단위인 것이다.

23) 전체주의론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의 이론적 경향들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시각'으로 불린다. 이 시각은 1930년대 스탈린 체제에 대한 사회사 이론가들의 논의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전체주의라는 전통적 접근법의 수정이라는 의미에서 '수정주의 학자

역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즉 '단 하나의 틈새도 없는 바위와 같은 통합체'를 의미하는 '유일체제(Monolithic System)'란 개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며 공식화된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24]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의 의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문제틀과 유사하지만, 방법론적 전제는 전혀 다르다. 릭비(T. H. Rigby)의 유일조직론적 사회(mono-organisational society)란 개념을 예로 들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전체사회가 유일조직(a single organis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행위들이 단일명령의 방향에서 위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릭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특성이 발생시키는 '은폐된 정치(Crypto-Politics)'의 존재다.[25] 즉 공식적으로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조직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의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정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6]

예를 들어 중앙당의 결정이 '유일명령'으로 하달되지만 중간 및 하부단위들에서 집행되는 과정은 혼란과 무질서, 자의적인 재해석 등이 나타난다. 중앙당의 의지와 하급당단체의 집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체주의 문제틀은 이런 점에서 집행과정의 문제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법이나 결정, 혹

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전체주의적 시각들이 당-국가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우위성을 강조한다면, 이들은 정치적 지배의 사회적 조건들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Sheila Fitzpatrick, "New Perspectives on Stalinism", *The Russian Review*, vol. 45(1986) 참조.

24) 릭비(Rigby)는 "유일사회(Monolithic Society)란 개념이 스탈린의 선전담당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T. H. Rigby, *The Changing Soviet System : Mono-Organisational Socialism from its Origins to Gorbachev's Restructuring* (Vermont : Edward Elgar Pub. Com., 1990), pp.6~7.

25) 은폐된 정치란 '전문화된 정치제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위계적 조직 내에서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수단이나 방편을 의미한다.

26) T. H. Rigby, *op. cit.*, 88~89.

은 지시 등 지도부의 의지를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다. 즉 공식화된 관계만을 문제삼는 전체주의적 문제틀은 이들 사회에서의 통제의 정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전체주의적 문제틀은 '사회적 과정'보다는 '국가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보다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의도'만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내의 역동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적 무대(social setting)에서 엘리트를 고립시키고, 정치적 지도부의 결정이 사회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것이다.[28] 당연히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로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권력의 지속성과 강고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변화와 그것을 반영하는 권력의 대응 방식 변화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패배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전체주의론은 '선험적 가치'에 의해 '사회주의'를 부정했지, 결코 붕괴를 가져온 변화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강정인 교수가 전체주의 접근법의 '이론적 유효성'으로 착각한 것은 다름아닌 '선험적 예언'에 불과하며, 그것은 이미 방법론적 함의와 '선언'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방법론으로서의 전체주의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1970년대 이후 다수의 이론들이 이미 '방법론적 단절'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주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다음으로 '사회주의'를 개념 규정하는 방법에서 송두율 교수나 강정인 교수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이 현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27) 이런 관점에서 전체주의 접근에 대한 비판은 Henry Reichman, "Reconsidering Stalinism", *Theory and Society*, vol. 17. no. 1(January. 1988) p.61 참조.

28) Jerry F. Hough, "The Cultural Revolution and Western Understanding of the Soviet System" in Shelia Fitzpatrick, eds.,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1*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84), pp.244~246.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따라서 송두율 교수의 초기 입장이나 강정인 교수의 문제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한다'라는 명제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현실을 평가할 수 있고, '국가 사회주의'의 개념과 이론틀로 '사회주의 체제'를 분석할 수 있다. 송 교수나 강 교수는 주로 전자만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연구에서는 후자를 더욱 중시한다. 그러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먼저 행위자인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규정'부터 살펴보자.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주체사상에 의해 발전 완성되어 가는 사회"[30]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31]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자기 진술'에 해당된다. 행위자의 '정당성 담론'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면, 이러한 규정이 마치 북한 사회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32]

하지만 내재적(경험-비판적) 인식론자라면, 행위자의 논리를 일단 이해한 다음,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의 과정에 돌입한다. 공식담론과 현실의 복잡한 긴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식 담론 분석[33]일 수 있고, 나아가

---

29) 마르크스나 레닌의 원론적 의미의 '사회주의',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공식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 그리고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규정하는 '사회주의'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다양한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정한' 혹은 '왜곡된'과 같은 가치평가가 개입된 형용사가 붙기도 하고, '국가', '스탈린적', '소비에트식', '현존' 같은 수식어들이 '사회주의' 앞에 붙기도 한다. 물론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0)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자, 1989. 12. 2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서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주요 논문집』(통일원, 1993), 184쪽.

3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 5.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참조.

32) 강정인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의 초기 입장들을 이러한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33) 북한문헌 담화분석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25~47쪽 참조. 여기서 저자는 공간문헌과 내부용 문헌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이들 사이의 서

'현실 사회주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일반화된 이론틀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론틀 내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규범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접근방법이다.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 '사회주의 체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경험적 접근[34]은 '현존하고 있는 (혹은 한 때 존재했던)'자신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주장하는' 사회체제의 실체적 작동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규범적 접근은 예를 들어 베틀렝(C. Bettleheim)의 '국가자본주의',[35] 토니 클리프(Tony Cliff) 류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36] 그리고 만델(E. Mandel)의 '타락한 노동자 국가'[37] 등등의 다양한 분석틀에 의존해 '사회주의 체제'를 평

술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하듯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용 문헌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한된 조건에서 북한의 공식문헌을 '유용한 자료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34) Kornai는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들이 가지는 추상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역사적 실체로서의 사회주의 체제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를, ① 혁명적 이행기 체제, ②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③ 개혁사회주의 체제라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그에 있어 이러한 구분은 '현존 사회주의' 역사의 일련의 세 가지 단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역사적 경험의 추상적 일반화로 각국의 역사발전은 반드시 이러한 순서의 순차적 전개가 아니라 역전과 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2), pp.19~20.

35)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Bettelheim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류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대표저작인 『Class Struggles in the USSR 1 2』(NY : Monthly Review, 1976, 1978)는 역사적 접근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국가 자본주의' 규정, 즉 "이행기 사회에서 사회적 소유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이고, 이러한 소유는 사회의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에 사회적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규범적 평가는 "Economic Calculation and Forms of Property"(London : MRP, 1975)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36) IS(International Socialism)그룹은 소련 사회에서 비록 내적 경쟁이 소멸되었지만 소련 사회가 군사 경제적 경쟁에 기반을 둔 세계체제의 일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소련에서의 관료적 독재의 축적 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가치법칙의 작동에 대한 대응형태가 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IS그룹의 대표적 이론서인 Tony Cliff, *State Capitalism in Russia*(London : Pluto Press, 1974)를 참조.

가한다. 북한연구에서도 베틀렝이나 토니 클리프의 개념틀을 사용하여 북한의 축적체제와 소유구조, 가치법칙의 작동방식을 분석할 수 있고, 만델의 개념을 통해 노동자 조직(직맹 등)의 국가화 경향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규범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경험적 접근은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들을 서술, 분석,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38] 물론 경험적 접근에서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에도 '규범적 일반화'보다는 '경험적 일반화'의 방법을 선택한다. 경험적 일반화란 '현실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나 경험들의 인과적 관계, 규칙성 등을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사회주의'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체계특징적 구조(system-specific structure)' 혹은 '제도적 원형(institutional prototype)' 등의 개념들이 그것이다. '현실사회주의'의 실체적 작동을 분석하기 위한 고유의 개념과 이론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social formation)으로서의 북한체제를 경험적으로 분해해 보면, 정치체제로서의 수령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경제체제로서의 계획경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계획경제와 관련된 이론틀은 상식화되었으며,[39] 가부장적 권력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인과관계에 대한

37) 만델은 소련 등이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결된 체제'라고 규정한다. 이는 소비에트 혁명은 '노동자 국가'를 창출했지만, 이것이 관료적 왜곡에 의해 '타락한 형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만델은 소련경제를 '낭비적 요소를 지니는 혼합 경제'라고 규정 한 바 있다. Ernest Mandel, "A theory which has not withstood the test of facts", *International Socialism*. 49(Winter 1990), p.47 ; "The impasse of schematic dogmatism", *International Socialism*. 56(Autumn 1992).

38)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국가 사회주의체제'의 역사적 형성을 다룬 徐東晩(1995)의 논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 국가와 사회, 정책(의 의도)과 생산현장(에서의 현실)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System), 그 자체의 형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1995).

39) 계획 경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성예산 제약 현상', 계획 자료 작성과 집행 과정의 '흥정', '비축', '정보왜곡' 현상 등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 산업화 관리와 공장관

'현실 사회주의' 연구 내에서의 논의는 다양하다.[40]

다시 말해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 강정인 교수류의 논리는 '사회주의 연구' 내에서는 연구 이전의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3) 사회주의 산업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정인 교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산업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두 체제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과학에서 추상수준의 의미를 무시하는 발상이다.[41]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추상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적합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사회주의 산업화를 보다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장의 차이 만큼이나 경제발전 전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화는 중공업 중심의 축적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투자의 우선 순위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28년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에 이론적 논거를 제공한 펠드만(G. A. Feldman)의 성장모델이 기초가 되었다. '2부문(two-sector) 성장모델'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정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부문보다 생산재 부문에 투자재원을 우선 분배해야 한다'[42]는 것이다.[43]

리의 정치(1953~1970) :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6) 참조.

40)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인격적 지배'와 '정치적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연철, 앞의 글, 313~314쪽 참조.

41) 인류와 원숭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두 동물이 모두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42) 펠드만 성장모델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소비와 GNP 모두가 장기적으로 극대화되어야 한다면 투자의 대부분이 소비재 부분보다 자본재 부분에 투하되어야 한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중앙계획화에 의한 중점투자의 이점을 살림으로써 일정기간 높은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성장의 동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불균형 성장 방식의 목적은 '주도 부문'의 우선적 성장을 통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산업 부문간의 연관효과가 성장의 핵심적 변수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선택적 투자로 인한 불균등 발전구조는 각 부문간의 성장을 단절시킴으로써 연관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중공업 중심의 축적 전략'은 일국 내에서 자기완결적 재생산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든, 아니면 자본주의권의 포위 때문이든, 국제분업이나 비교우위를 포기함을 의미한다.[44] 이때, 북한과 같은 소규모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규모가 큰 국가들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제한된 자원기반으로 불균형성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공업 중심의 축적전략'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선택한 급진적 전략은 축적을 위해 소비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소비의 희생은 이들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즉 미래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현재 상태의 희생을 요구(강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따라잡고 앞지르기(catching-up and overtake)' 전략이 공식 이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펠드만 성장 모델의 수식에 관해서는 Gregory, P. & Stuart, R., *Soviet Economic Structure & Performance*, (N. Y. : Harper & Row Nove, 1990), pp.85~88.

43) 북한에서 이러한 성장모델의 주요 논리는 이른바 '확대재생산의 경제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수용된 바 있다. 즉 농업이나 경공업(방직, 식료품 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기계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기계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상급학습반 참고자료 3』(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37쪽.

44) 물론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쿠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제분업'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김두진은 쿠바-소련관계를 '사회주의 종속적 발전'이라는 이론틀로 분석한 바 있다. 김두진, "쿠바의 사회주의 발전과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선택", 김세균 · 이수훈 외 공저,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서울 : 나남, 1992), 123~171쪽 참조.

데올로기의 하나가 되었다. 스탈린은 1931년 연설에서 "우리는 서구의 발전된 사회에 비해 150년 뒤쳐져 있다. 우리는 이 간격을 10년 내에 좁혀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부술(crush)것이다"고 연설한 바 있다. 중국의 대약진 시기의 주요 구호중 하나 역시 "15년 내에 영국을 앞지르고, 미국을 따라잡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5]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김일성은 1958년 한 연설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 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이룩한 수준을 우리는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인구 1인당 중요 공업제품의 생산량에서 "벌써 일본을 따라 잡았거나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46]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번영을 위해 현실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지만, 목표(따라잡고 앞지르기)와 현실(저발전 상태)의 엄청난 격차를 메우는 것은 그만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요구했다.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의 성장을 '강행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 전략은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권위주의형 압축성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한 소비 억제,[47] 강제적인 투자의 우선 순위 조정은 분명 국가의 '과도한 개입' 정도로 설명할 수 없다. 계획경제와 '관료적 시장 조정'은 일부 현상적 유사성은 있을지 모르나 전혀 다른 제도적 환경 위에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강행적 성장'[48]의 선택과 실행은

4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2), p.161.

46)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 11. 20.", 『김일성 저작선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249~251쪽 참조.

47) 북한의 배급제와 같은 강제적 분배 시스템은 어떠한 권위주의형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48) 코르나이(J. Kornai)가 말하는 강행적 성장(forced growth)이란 "사회 내의 자기 발전적인 운동이기보다는 속도의 가속화가 관료기구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된 것"을 의미한다. 강행적 성장의 주요특징은 첫째, 고율의 투자와 낮은 소비, 둘째, 특정한 우선 순위, 셋째, 외연적 발전을 위한 잠재력의 가속화된 이용을 의미한다. Janos Kornai, *op. cit.*, p.197.

격렬한 당내 갈등과, 인민들의 불만, 그리고 그러한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을 가져왔다. 이것이 성장의 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 전략은 후진적인 생산력 수준에서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경제 위기의 기원이 되는 '경로 규정성(path-dependency)'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과 자본주의 국가의 권위주의로부터의 이행과정 역시 엄격한 차이가 있음은 이 때문이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농 현상이나, 새로운 계층 형성 등은 현상적으로 자본주의 산업화와 유사할 지 모르나, 내용적으로 '체제 특징적' 차이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그 사회적 결과는 상이한 제도론적 기초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한 '체제 특징적 개념'들이 필요한 것이다.

4. 인식론 논쟁의 종결과 연구 방법론 논쟁을 기대하며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북한연구사적으로 냉전과 반냉전의 대결구도가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탈냉전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구부러진 막대기를 다시 펴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냉전적 연구경향들의 또 다른 편향은 극복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강정인 교수가 그러한 극복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강 교수는 다시금 '가치의 시대'로 연구사를 퇴행시키고 있다. 강 교수가 전개하고 있는 '내재적 접근'에 대한 이해 방식(즉 사용하고 있는 개념 및 분석틀이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가치 지향을 갖느냐에 따른 구분)은 이미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경험적이라는 의미며, 경험-비판은 인식론이 아닌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문 북한연구자들의 암묵적 동의를 역행하는 문제제기였다.

강 교수는 인식의 방법과 연구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았다. 나아가 인식의

방법을 연구의 방법으로 착각했으며, 동시에 연구의 방법에서도 전체주의론이나 사회주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강정인 교수는 인식론 논쟁의 확전을 의도하고 있지만, 북한연구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연구 방법론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49] 북한연구는 과거의 '가치의 시대'에서 이제는 '논증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일성저작선』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조선로동당출판사, 『상급학습반 참고자료 3』(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김정일 주요 논문집』(통일원, 1993).

강정인, "북한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1994 가을).

_____, "북한연구 방법론 : 재론", 정치학회 발표문, 1998. 9. 26.

김연철, "북한식 체제의 성격 규정을 위한 연구 방법론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_____, "북한 현대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서울 : 역사비평사, 1996).

_____,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 관리의 정치(1953~1970) : '수령제' 정치체계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6).

김용학 · 장덕진, "베버의 가치와 사실의 비대칭적 분리 : 가치연관과 가치중립성을 중심으로", 배동인 외, 『막스베버 사회학의 쟁점들』(서울 : 민음사, 1995).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서울 : 한겨레출판사, 1995).

_____,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1995 봄).

_____,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한국사 22 : 북한의 정치와 사회』(서울 : 한길사, 199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1940) :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동향과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49) 주제별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 현대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참조.

1995. 12).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서울 : 한길사, 1982).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1995).
_____, 『조선로동당연구』(서울 : 역사비평사, 1995).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1995).
和田春樹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Bettelheim, C., "Class Struggles in the USSR 1 2"(NY : Monthly Review, 1976, 1978).
_____, "Economic Calculation and Forms of Property"(London : MRP, 1975).
Cliff Tony, *State Capitalism in Russia*(London : Pluto Press, 1974).
Fitzpatrick, Sheila, "New Perspectives on Stalinism", *The Russian Review*. vol. 45 (1986).
Gregory, P. & R.,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 Performance*(NY : Harper & Row Nove, 1990).
Hough, Jerry 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Western Understanding of the Soviet System" in Shelia Fitzpatrick, eds., *Cultural Revolution in Russia 1928~1931*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1984).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2).
Mandel, Ernest, "A theory which has not withstood the test of facts", IS. 49.(Winter 1990).
_____, "The impasse of schematic dogmatism", IS. 56(Autumn 1992).
Reichman, Henry, "Reconsidering 'Stalinism'", *Theory and Society*, vol. 17. no. 1 (January 1988).
Rigby, T. H., *The Changing Soviet System : Mono-Organisational Socialism from its Origins to Gorbachev's Restructuring*(Vermont : Edward Elgar Pub. Com., 1990).
Zimbalist, Andrew, ed., *Cuban Political Economy : Controversies in Cubanology* (Boulder and London : Westview Press, 1988).

(Abstract)

A Reappraisal of the Methodological Debates on North Korean Studies

Kim Yeon Ch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olitical Science)**

Professor Kang's recent questioning of "the internal approach" takes studies of North Korea in a degenerating direction. His critique has very important faults : First, it does not discern method from epistemology in North Korean studies. It ignores the fact that my works on North Korea have accepted the internal approach not as a research method but as an epistemological one. The epistemological method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object being studied. As each work has its own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s vary according to the themes or domains of the study. The empirical epistemological method in North Korean Studies was developed to overcome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transcendental determination built up from the Cold War." We must not forget one of the basic principl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that fact (understanding) and value (interpretation) are not on the same site.

Second, its critique focuses on Professor Doo-Yool Song's early determination of the concept, "internal," even though he has now changed it into "immanent." Here it has another fault. It continues criticizing the ideological tendency of "internal/external" approaches, but it still uses a same way and falling down in ideological competition. It is a contradiction to stand its criteria by using its target.

Third, it has overly simplified the existing theoretical development of North Korean Studies and studies on 'socialist system'. Nowadays, studies on

this area have already passed by the problematic framework of the 1970s. His work, however, bases its own critique in aspects of the past framework. First of all, it does not discern the totalitarian problematic framework from the theory which insists on totalitarianized characters of political power. It does not recognize that totalitarian theory and the critical theory on the political power of "real socialism" look similar but have absolutely different approaches. Unlike its assertion, the totalitarian approach on the "study of socialistic history" has failed to prove its theoretical appropriateness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k.

Furthermore, it criticizes the internal approach that emphasizes differences in the industrial-societal attribut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but its assertion ignores an abstract level of meaning used in social science. We cannot avoid "system-characteristic concepts" to explain the socialistic development compared to capitalistic development.

It is time for us to start methodological not epistemological disputes. North Korean studies should be converted from a "field of value" to a "field of analysis."